

밸런타인데이 최고 인기男은 현빈



우리나라 미혼 여성 넷 중 한 명은 밸런타인데이에 텔런트 현빈과 데이트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결혼정보회사 선우에 따르면 지난 7~9월 20~40대 미혼 남녀 각각 250명에게 '밸런타인데이에 만나고 싶은 스

타'를 물어본 결과 여성 응답자의 26.4%가 텔런트 현빈을 꼽았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8.0%로 2위를 차지했고 송승현과 원빈이 각각 7.2%로 뒤를 이었지만 현빈의 인기는 크게 못미쳤다.

남성 응답자가 꼽은 밸런타인데이 데이트 상대로는 텔런트 김태희가 가장 많은 13.6%의 표를 얻었고, 가수 아이유와 배우 수애가 각각 10.4%, 8.4%의 '구애'를 받았다.

전남대 인사…기획처장에 복문수 교수



전남대(총장 김윤수)가 14 일자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처장에는 복문수(55· 행정학과)교수를 임명했으며,



학무정책실장에 박구용(43· 철학과)교수, 재정관리본부장에 이상호(45· 경제학부)교수



를 각각 임명했다.

또 교무부처장에 김재윤(39· 경영학부)교수, 산학연구부처장에 전우진(47· 식품영양학과)교수가 새로 부임했다.

복, 기획처장은 단국대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수대에서 학생처장, 교무처장을 지내고 최근에는 평의원회 평의원,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검찰 수사관 전남대 로스쿨 합격

대검찰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서울북부지검 조병석(33·7급) 수사관이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최종합격해 내달 2일 입학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수사관은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7년 12월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수사관을 로스쿨에 입학 시켜 3년간 법학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복귀해 근무하게 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

조 수사관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의 평가를 거쳐 첫 대상자로 선발됐으며 졸업 후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2008년 8월 취임 때 검찰 조직 안에서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 오랜 벽을 깨고자 능력 있는 수사관에게 로스쿨 진학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환우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러 왔습니다”

장성 출신 노래하는 사회운동가 김정식씨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래하는 사회운동가로 잘 알려진 장성 출신의 자선 음악가 김정식(57)씨가 지난 10일 ‘병자의 날’을 맞아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김씨는 이날부터 3일간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기독교병원에서 자작곡 ‘당신을 사랑해요’를 비롯해 특유의 구수하고 서민적인 노래들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웃, 인권, 환경을 이야기하며 40여 년에 가까운 음악인생을 살아온 가수로 잘 알려져 있다. 1987년 ‘심장병, 백혈병 환우를 돋기 위한 명동거리공연’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교도소, 어린이 공부방 등을 찾아다니며 베림받고 소외된 이웃을 돋기 위한 자선공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사형폐지를 위한 노래마당’, ‘장애인 단체를 돋기 위한 노래공연’, ‘웅산참사’, ‘4대강’ 등 인권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자리에도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그동안 그가 찾아다닌 음악회만도 3800여 곳이나 되고, 해외에서 교민들을 위한 공연도 100여 차례에 이른다.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의 음악 철학 때문이다.

광주 동중학교 밴드부 활동을 하며 음악을 처음 접한 김씨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군대에서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군대 동료의 누나였던 이해인 수녀가 보내 준 그녀의 첫 시집 ‘밀들레의 영토’를 읽고 감동을 받아곡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78년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재학시절 제2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약속’으로 은상을 거

며쥔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음악인생을 걸어오고 있다. 당시 함께 입상한 동료들이 배철수, 심수봉, 임백천 등이었다.

그는 당시 대학가요제 은상으로 함께 음악을 하자며 들어온 수차례의 제의를 거절했다. 상업적 가수가 되면 그가 음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성은 거부하지 않지만 상업성은 거부한다는 생각이 그가 자선음악가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됐다.

김씨는 “상업적 가수보다는 소외된 사람, 베림받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며 “제 노래는 대중매체를 이용해 팬들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제 삶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음악을 하게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며 “언제나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주 난민에게 사랑의 손길을”

광주인권평화재단 태국·버마 자원봉사



인권과 세계 평화 관련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이하 인권평화재단)이 16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태국과 버마 국경 메솟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인권평화재단은 의사 2명, 학생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 베마 이주난민을 위한 진료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인권평화재단의 상임이사인 김재학(사진) 신부가 인솔한다.

인권평화재단과 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대 보건진료소(소장 손석준 교수)는 의료진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모

임에서도 담사단을 파견해 현지 사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16명은 현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펼치고, 귀국길에는 치앙마이 등에서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베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태국의 메솟지역은 1988년 베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구경을 넘은 난민들이 정착촌을 이룬 곳으로 지난해 베마 총선 과정에서도 난민이 대거 이주했다.

담양군과 담양읍사무소(읍장 박기호)에 따르면 무정면에 위치한 담양황금박쥐부대가 지난 11일 담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군

“위문품 소외 이웃과 나눠요”

담양 황금박쥐부대 나눔행사



담양 황금박쥐부대가 위문품으로 전달된 의류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담양읍사무소 관계자는 “다문화 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약 4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전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정장▲광주전남지역본부

구조기·기양호·김건일·김남강·

김성규·김정수·김윤·김한식·

김형민·김희종·남성관·노형규·

문창호·박용철·박효열·백동화·

양채현·이남기·이원재·전태호·

정득재·조성환◆전북지역본부

곽명수·김훈·모기만·박창자·신

정근·오성근·오인교·유용우·유

제록·이강길·이선관·정형기

◆농수산물유통공사

◆2급 전보▲광주전남지사 관

리비전립장 송강삼▲광주전남지

사 수출유동팀장 정신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보▲전주지부 정

읍출장소장 윤종렬▲변호사 신규

임용▲광주지부 구조부장 박진숙

◆전주지부 구조부장 이봉현▲광

주지부 순천출장소장 유현우▲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 황철환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장 이승찬▲순천상

담소장 장현숙

조선대 노인센터 바우처 위탁기관 지정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최근 2011년 장애인 바우처 사업 위탁기관으로 조선대 노인복지센터, 동구장애인협회, 광주아동발달 심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템플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9393.

향우회

▲재광 도암향우회 만남의 날= 18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 프라자호텔. 010-3628-7468.

종친회

▲장흥위씨 광주종친회(회장 위인백) 정기모임=15일(화) 오후 6시 신성식당(YMCA 뛰뛰) 062-232-0176, 011-602-9727(총무)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신년하례 및 이사회회=22일(화) 오후 11시 무등고시원원. 011-9615-8567.

모집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5기생=

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여. 28일(월)까지 모집. 062-652-7374.

▲광주FC 축구회원=사업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경,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 보험=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의 시험 실시, 소수 정에,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횡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 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

(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복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듬교예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 어교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종입정검정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수단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